"하이퍼텍스트 문학에서 근대적 작가는 사라진다"

《디지털 시대의 문화 읽기》 펴낸 최혜실 교수

최혜실 교수는 문학이 적극적으로 하이퍼텍스트를 수용하고 영상, 광고, SF · 무협소설 등의 요소를 활용하는 상품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제 문학은 '교훈' 과 '각성' 을 유도하기보다는 '위안' 과 '놀이' 로 변모해야 하며 능동적인 독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인문학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대중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최혜실 교수(40)가 펴낸《디지털 시대의 문화 읽기》는 오늘날 인문학이 봉착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다양한 타자성으로 탈근대의 징후들 짚어내

최교수는 우선 이 책에서 탈근대의 징후들을 짚어낸다. 그는 문학, 문학교육, 섹슈얼리티 등을 통해 징후들을 발견해내는데, 그 징후들은 모두 '다양한 타자' 들에 대한 관심으로 환원된다.

타자성에 대한 최교수의 이런 관심은 원래 마이너리티 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스스로 소수자라고 여긴다. 그가 서울대 인문사회계열에서 최연소(28세)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것도 결코 그가 마이너리티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그는 자신의 대학시절을 "살아가는 데 영위해야 할 모든 것이 유보된 상태였다"고 회상한다. 그는 80학번이다. 예비고사를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대학에 입학해서는 '서울의 봄' 과 '5 · 18' 과 '108일 동안의 휴교' 를 겪어야 했다. "하나의 마이너리티가 폭력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그밖의 모든 마이너리티는 무시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폐쇄적인 모범생이었고 또 여성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타자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타자에 대한 관심은 이 책에서 매우 다기화됐다. 디지털 문학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게임, 광고, 영상, 추리소설, SF, 무협소설 등의 대중적인 문화형식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문학 · 예술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고민한다. 특히 디지털 문학의 '대표주자' 인 하이퍼텍스트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미국 작가 샐리 잭슨의 하이퍼텍스트 소설《패치워크 걸》등을 예로 들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가 적극적으로 디지털 문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그의 전공과도 무관하지 않다. 1920~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을 전공한 그는 한때 이 상, 최명익, 박태준의 소설들과 씨름했다. 그때 그의 시선을 끈 것은 모더니즘 소설의 형식성과 영상성, 일상성이었다. 당시의 모더니즘 작가들은 소설의 형식성, 영상성, 일상성을 추구하면서 근대 초기의 도시적 삶을 문학화하는 데 충실했다. 그들처럼 최교수도 자신의 시대에서 탈근대의 징후들을 살피며 이것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왔다.

이런 바탕 위에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임용되면서 디지털 문학에 대한 그의 관심은 더욱 본격화됐다. 그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교수로 생활하는 것을 "치명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에는 모두 18명의 교수가 있는데, 이들 모두 전공을 지도하는 학생이 없다. 오직 이 공계열 학생들에게 교양이나 관련전공을 강의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도리어 그의 사유를 자유롭게 해줬고, 국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런 고민을 통해 그는 지난 4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디지털 구보 2001》이라는 하이퍼텍스트 소설을 써 인터넷에 발표했다.

위안과 놀이가 강조되는 디지털 문학

"이미 하이퍼텍스트는 중요한 매체가 됐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글을 쓰는 행위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러나 텍스트에 익숙한 작가들은 초기 하이퍼텍스트의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하이퍼텍스트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는 지금의 하이퍼텍스트 문학을 영화에 비유한다. 영화가 초기에 움직이는 그림에서 시작해 영화이론을 거쳐 하나의 미학으로 발전했듯 하이퍼텍스트 문학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소명출판/A5신/350면/14,000원

그가 하이퍼텍스트 문학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강조하는 것은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다. 하이퍼텍스트 문학은 복잡하게 연결된 고리를 독자가 선택해서 다양한 플롯을 즐기거나 자신만의 줄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 최교수는 하이퍼텍스트의 이런 다양한 연결방식이 상호텍스트성을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 이제 '물렁물렁해진 텍스트'는 끊임없이 재조합되고 압축됨에 따라 축적,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조합, 소비되는 존재고 문학텍스트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근대적 개념의 작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최교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디지털의 양방향성 때문에 독자는 자신의 행동에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독자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멀리 떨어져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부딪혀 대상을 변화시키고 자신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학은 여태까지의 문학이 그랬던 것처럼 '교훈'과 '각성'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위안'과 '놀이'가 강조된다. 그것은 다른 측면으로 '작품이라는 아우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제 작가는 단지 정보제공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교수는 미국의 하이퍼텍스트 소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작가의 독특한 개성마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이퍼텍스트 문학이 보편화되면 전문적이고 독특한 개성이 있는 작품이 많이 양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인문학은 대중과 눈높이 맞춰야

하이퍼텍스트 문학에서 그가 강조하는 것처럼 그의 관심은 '권위적인' 작가보다는 독자고 대중이다. 수요자(독자)가 없으면 생산자(작가)는 곧 자멸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독자와 작가의 소통구조가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가에서 독자로 향하는 일방적인 소통구조에서 작가의 카리스마만 강조하는 것은 독자나 작가에게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죠. 독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발전해가야 해요."

그렇다고 그가 주장하는 것이 대중을 무조건 따르자는 것은 아니다. 변화된 대중이 원하는 것을 문학이나 인문학이 빨리 읽어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주자는 말이다. 그가 책의 많은 부분을 영상, 광고, SF · 추리소설, 무협소설에 할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서사문학이 이런 것들과 결합해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를 살피고 있다. 예술의 상품화는 이제 피할 수 없으며, 그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은 현실을 살아가는 소비자로부터 비판자를 고립시킬 뿐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이제 예술가들은 배면에 깔린 귀족주의를 버리고 상품성과 예술성, 현실 순응과 비판 사이의 접점을 늘 깨어 있는, 긴장된 의식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인가. 그는 이 책에서 "모든 사람이 믿는 '거짓'은 진실이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점은 아직 자신 안에서 유보상태라고 대답한다.

"일단은 내가 발 딛고 있는 자본주의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그 순간 위선자가 돼버려요. 악몽 같은 현실이지만, 내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임에는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를 긍정하되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순간 자신은 모순적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팔짱만 끼고 비판만 하지도 않는다. 그가 오직 할 일은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이 땅의 모든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는 믿는다. —김장근 기자

강의를 끝내고 학생들에게 듣는 말 "재미있다"

최혜실 교수는 인터뷰 하루 전에 네팔 여행에서 돌아왔다. 비가 많이 와서 힘들었다고 한다. 다른 문화를 접하다보면 관대해지기도 한다지만, "가난한 것은 가난한 것이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그는 못박는다. 그 말을 들으니 좀처럼 감상에 젖을 것 같지 않을 강단진 그의 성격이 느껴졌다. 자신에게 한계가 느껴질 때는 산에 자주 오르는데, 이번 네팔 여행에서도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은 히말라야를 해발 3200미터까지 올랐던 것이라고 한다. 그에게 자신을 이겨내는 일이란 어쩌면 이 땅에서 문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로 이어지는 노력일 거라는 조심스런 추측도 해본다.

그가 인터뷰 가운데 가장 강조했던 것은 인문학이 권위를 내세워 뒤에서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중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해내고 대중에게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과 소통하며 대중과 인문학이 함께 발전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그가 지난 학기에 강의했던 '문학으로 보는 성'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그는 강의 내내 진지한 눈빛을 보내던 학생들을 보며 자신의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 강의를 끝내고 학생들로부터 항상 듣는 말은 "재미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나이에 이르러서도 재미있다는 말밖에는 듣지 못한다"며 웃었지만, 그 재미에서부터 소통은 시작되고 함께 발전해나가는 것이리라.